

사설

막장 드라마였던 공천 후유증  
총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감동은 없고 생체기만 남기고 끝난 여야 경선이었다. 광주를 텃밭으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이 공천을 마무리 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경선 후폭풍이 총선 변수로 등장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광산갑 이석형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광산을 재경선등 광주에서만 두차례 무효화 되는 생체기만 남기고 끝났다.

시스템 공천이 무색해지고 4.15 총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광주·전남 지역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석형 후보의 공천 무효에 광산을 재선거 후유증까지 거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 광산은 최고위에서 재경선 결정이 내려져 당초 박시중 후보가 승리했으나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박시중 후보와 민형배 후보간 난타전도 막장 드라마 수준이었다. 당초 박시중후보가 권리당원 명단 활용 여부에 발목을 잡았으나 이번에는 박시중 후보가 민형배 후보를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고 공격하면서 경선 후유증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변수다.

민생당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복수 후보지역인 동남을 공천을 논의한 결과 김성환 전동구정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가 곧바로 박주선의원으로 뒤바뀌었다. 공관위가 재심사에 들어가 자신들이 비밀투표로 결정한 후보를 하루도 안 돼 번복했으니 엇가락 공천이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보니 민심에도 심상치 않은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비상식과 부도덕 무원칙이 난무한 경선판을 보고 오만한 민주당에 심판론이 일고 있지만 짝을 사람이 없다고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고무된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정치 개혁이라는 민주당의 개혁 이미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깨끗한 선거 풍토를 원했던 지역민의 바람과도 정면 배치된다. 여기에는 당 지도부의 무능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후유증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는 4.15 총선에서 패서운 지역 민심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민생당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박주선 파동에 정동영 탈당까지 바람 잘 날이 없다. 민생당 이므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본선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더불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이해한 대표가 아쉽게 내세운 혁신이었다. 그러나 곳곳의 잡음으로 빛이 바랬다. 생체기만 남긴 곳의 경선 잡음을 딛고 어떻게 총선 민심을 다독일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쏠린다. 감동 없는 경선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도 여지 없이 드러났다. 막장 드라마같은 지역 공천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지켜볼 일이다.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김규연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 장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동로 273-135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4,700원



칼럼  
조영무

공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적벽대전5-월명성희

달은 밝고 별은 희미한데다, 까막까치는 남으로 날으네 月明星稀 烏鵲南飛. 조조의 구상은 한수와 장강을 따라서 동으로 내려가 손권의 강동을 무너뜨리고 천하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조조의 전략적인 배치는 다음과 같다. 하나, 조조가 친히 행주의 수군, 기병의 주력을 이끌고 강릉에서 출발하여 장강을 따라 하구夏口로 진격한다. 둘, 또 다른 일부 수군, 기병으로 하여금 양양을 출발하여, 한수를 따라 하구로 진격한다. 셋, 조인과 하후연은 후방 강릉에 주둔한다. 넷, 조홍은 양양에 주둔한다. 다섯, 순욱과 하후돈은 허창을 지키다.

손권과 유비는 동맹을 맺어 조조에 항거한다. 손권은 주유, 정무를 좌우도독으로 삼고 유비군과 호응하도록 한다. 노숙은 찬군교위에 임명하여 작전과 전략 수립에 일조하도록 한다. 주유는 정예병 3만명을 이끌고 장강을 따라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손권은 후방 시상에서 주유군과 호응한다.

손권 군대는 좌우도독 주유, 정보를 중심으로 선봉 황계, 장수 감녕, 여몽, 한당, 주태, 손번, 육손, 반장 등이 참여한 다. 후방은 주환이 손권과 함께 시상을 지키면서 지원한다. 유비군대는 관우가 수군 1만명을 이끌고 하구에 주둔한다. 장비와 조운은 각각 병사 4천명을 이끌고 노산에 주둔한다. 유비와 유기가 번구에 주둔한다.

208년 11월, 강릉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조조는 유표 휘하 행주의 수군을 바로 인수하여 22만(조조군 15만, 행주군 7만)을 이끌고 수로를 이용하여 동으로 진격하여 장강 연안 오림烏林에 군영을 설치

했다. 오림은 육수하부근으로 강서구강으로 향하고 남북상호 포진지역으로 적절할 곳이다. 이 와중에 세자들에 의해서 손유 동맹이 성공했다는 정보가 조조진영에 전해진다. 손유연합 이후 정국에 관해서, 조조의 모사들은 손권이 유비를 죽일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정욱의 의견은 달랐다. "손권은 자리에 오른 것이 일천한지라, 천하가 두려워할 만한 강자는 아닙니다. 조공계선 지금 천하에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고, 이제 형주까지 평정하시어 그 위엄을 강호에 떨칩니다. 손권이 비록 신중하고 지략을 갖추고 있다 한들,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한데 유비께서는 인망이 두터워서 따르는 장수들이 많고 용맹하며, 그를 섬기는 백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손권은 필히 그들의 힘을 빌어 우리를 막으려 할 것이

니다. 손권은 동맹을 무너뜨려서는, 조공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코 유비를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후 역시 즉시 손권을 공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바로 교전을 벌이는 대신 형주지역의 풍부한 물산을 끼고 앉아 강동에 압박을 선사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바로 관도전투에서 전풍이 원소에게 올린 지구전을 펼쳐지는 전략과 비슷한 내용이다. 약한 전력으로 강한 전력을 이긴 조조가 이번에는 반대의 입장이 되어서 오만과 자만에 빠져 모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원소를 닮아버린 것이다.

208년 10월, 조조는 오림 군영과 연안 포구에 배치한 수제들을 시찰하고 풍도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을 위로했다. 비록 말 위에서 대륙을 가르며 치르는 기병전이 아닌 장강에서 펼쳐는 수전이라는 점

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병사 수에서 적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전장에서 누리고 살아온 대륙의 지존이자 늙은 여우 조조에게 손유연합군은 오합지졸로 여겨졌다.

강변에 24개의 수문을 세우고 배마다 등을 달아 놓으니 밤이 되면 장관이다. 오림의 군영은 무려 300리에 연이어 들어서 있었다. 그 위세가 자못 당당하다. 조조는 이번 전투에 참여한 장수와 모사들을 불러, 자신의 웅대한 함대에서 화려한 선상연회를 베풀었다. 교교한 달빛이 장강에 쏟아지니, 바닥에 깔린 흰 모래가 드러날 정도로 맑고 고요하였다.

남병산의 경치가 그림 같았다. 동쪽으로는 시상의 경계지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하구의 강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번산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오림을 바라보아도 어느 한 곳 막힌 곳 없었었다. 달빛에 취한 조조가 벼머리에 서서 창櫓를 잡고 시 한수를 읊었다.

술 마시고 노래하세/인생이 길어야 얼마더나/~~~달은 밝고 별은 희미한데다/까막까치는 남으로 날으네/~~~/주공처럼 어질다면/천하를 얻으려만

월명성희에서 나 조조와 같은 영웅이 나타나 유비와 손권 같은 군웅은 곧 사라질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조조가 지은 단가중 중 일부이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했다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전장에서 여유와 자신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너무 일찍 축가를 부르는 것은 아닌가.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528-4566

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음력 3월 9일)
48년생 언제나 반겨주는 친구를 찾아보자. 60년생 애뜻함이 많아도 모 큰 걱지 처자. 72년생 이름다운 미소를 그려낼 수 있다. 84년생 떠나 지않은 시선사람이 다시 온다. 96년생 늦지 않은 시작 재미가 더해진다.
49년생 책임감 강한 선생님이 되어보자. 61년생 슬픈 기억들은 추억이 되어간다. 73년생 대견함과 인도의 눈물이 흘러간다. 85년생 비쌍감을 부르는 배짱을 가져보자. 97년생 쉽지 않은 이별 사려움이 더해진다.
50년생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에 취해보자. 62년생 금하지 않은 노릇함이 필요하다. 74년생 행복을 약속하는 인연을 볼 수 있다. 86년생 박수 받는 일에 용기를 가져보자. 98년생 응원과 격려에 자신감이 더해진다.
51년생 걱정 하나 없는 편한함을 누리보자. 63년생 주머니 번개나 인심을 나눠보자. 75년생 고생한 보람 환한 웃음을 볼 수 있다. 87년생 정성 이한기득 선물을 받아낸다. 99년생 근거 없는 오해 색안경을 벗어보자.
52년생 이웃과 함께 할 경사를 맞이한다. 64년생 번개운 부름에도 코대를 세워보자. 76년생 내일이 없는 듯한 욕심을 채워보자. 88년생 사서하는 고생 모양새만 빠져간다. 00년생 추웠던 기분이 햇살이 비춰준다.
42년생 실지 않은 유혹 못이긴 척 때려쳐자. 54년생 기분 좋은 승리구름을 날려보자. 66년생 무거웠던 마음이 가볍게 변해간다. 78년생 엄지손가락이 깨물어질로난다. 90년생 지는 해가 아쉬운 만남을 가져보자.
43년생 미움이 바래도 쓴 소리에 앞장서자. 55년생 쉬지 않은 공부 세상에 알려진다. 67년생 말로 감을 수 없는 고이음이 온다. 79년생 찬바람 불던 부진기지가개를 파보자. 91년생 부지런한 공부 내일을 준비하자.
45년생 경쟁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 57년생 부정이 아닌 긍정 믿음을 더해보자. 69년생 계산 하지 않는 인심을 보여주자. 81년생 평대신 닦아다치선에 만족하자. 93년생 인도의 한숨 풀린 가슴 열매가 된다.
46년생 날이갈듯 벅찬 기쁨을 볼 수 있다. 58년생 기르침이 아닌 아껴 넣어 배워보자. 70년생 고된 노동 후에 상쾌함을 볼 수 있다. 82년생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야 한다. 94년생 꾸준히 했던 연습 기회를 잡아낸다.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지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언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